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성경적 공동체

- 이사야 11:6-9 해석을 중심으로

정중호*

1. 서론

현재 세계는 빈부격차 문제로 들끓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1%를 위해 99%가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이 폭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시대가 지나고 저성장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 현상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빈부격차 문제와 복지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나는 격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분명 이 문제는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을까? 우선 초대교회에서 서로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고 각 사람들이 필요한대로 나누며 살았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떠올릴 수 있다(행 2:44-45; 4:32-36).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는 특수한 시대인 박해 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웬지 평화 시대에 널리 실현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살았던 쿰란공동체도 그러했고, 조선에서 박해를 당했던 천주교 신자들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평화시대에는 과연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할까? 지속가능한 공동체인가?

빈부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단연코 희년이리라 할 수 있다. 모든 백성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니 완벽한 평등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희년이 나타난 레위기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희년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이주자와 토지와 무관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주자는 외부인으로서 원래 토지가 없었으니 희년을 실시해도 회복할 토지가 없는 것이다.¹⁾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주자이지만 희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상업 혹은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관리로서 토지와 상관없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²⁾ 사실 이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희년제도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희년은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토지를 소유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 따라서 극빈자들과 부자들을 제외시킨 제도이기에 희년을 실시해도 부분적인 평등이지 전면적인 평등이 될 수는 없다.

희년제도에도 빈부격차를 없애고 완벽한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너무 격차가 심해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한 평등을 목표로 하기보다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용인하되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

*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1) 이주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희년이 되어도 이주자는 해방되지 않는다는 레위기 25장 44-46절을 볼 때 희년은 이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성 안의 가옥은 희년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레위기 25장 29-30절을 볼 때, 토지와 무관한 도시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정중호, “한국 토지 개혁과 희년 실시 방안,” **장신논단** Vol. 46 No. 2 (2014), 51-52.

이 성경적으로 적합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빈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면제년과 노비해방법이 있는 신명기 15장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또한 하나님은 기름부음 받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왕정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권이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왕정이라도 왕정이란 기본적으로 왕실과 관료와 군인들이 일반 백성에 비해서는 강자라는 것을 용인하는 체제이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마 26:11)고 말씀 하시면서 이 세상에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로 보여진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눅 7:2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땅 뿐 만 아니라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⁴⁾ 이처럼 성경은 평등이나 평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보다,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었다. 아무리 평등한 사회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격차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사회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사야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공동체가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밝히면서, 이 공동체가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2.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사야 공동체

이 땅에서 평화 시에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이상적인 공동체로 성경이 제시한 이사야의 공동체는 강자와 약자가 있는 공동체이다. 이사야 11장 6-9절에는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은유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야 11장 6-9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미지에는 동물과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맹수와 약한 짐승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맹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은유적 이미지는 예언서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메시아에 의해 성취될 것으로 해석하면서 현실적이기 보다 먼 장래, 혹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⁵⁾ 이사야 11장의 경우 전통적으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날 메시아, 즉 예수

4) 마태복음에도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라는 구절이 있다.

5)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도 ‘Messianic ruler’ 혹은 ‘Messianic k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먼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R. E. Clements, *Isaiah 1-39* (NCBC: Grands Rapids: Wm. B. Eerdmans, 1980), 124; S. H. Widyapranawa, *Isaiah 1-39* (ITC:

님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이상적인 광경은 메시아가 이룩할 아름다운 나라가 예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언이 나타나는 이사야 65장과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계시록(계 21:1)과 연관시켜 이사야의 공동체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왔다.⁶⁾

이사야 11장을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메시아 중심으로 해석 해왔던 이유는 이사야 11장과 비슷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보여준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사 65:17)이라는 구절 때문이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절이 계시록(계 21:1)에 나타나면서 이 구절은 세상 끝 날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이사야 11장과 65장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 개념은 65장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것은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에서 꾸준히 예언되어 온 내용이다(사 43:14-21; 48:6-7; 65:17; 66:22). 특히 이사야 48장 7절에는 “이 일들은 지금 창조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구약에서는 시간마다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구절이지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야에서 선포된 이상적인 사회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 땅에서 이루질 수 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종말론적인 해석은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보며 해석한 후대의 해석이다. 원래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선포되었을 당시의 메시지는 다윗왕조의 통치하에 이룩될 이상적인 평화의 사회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언은 단순한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언제나 현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였다. 물론 먼 장래의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지도자였다. 특히 주전 8세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빈부격차의 문제와 강자의 횡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등 여러 예언자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사야 11장 6-9절 부분은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단위가 아니라 이사야 10장 27d절부터 12장 6절에 이르는 해석단위의 한 부분이다. 이사야 10장 27d절부터 12장 6절에 이르는 이 해석단위는 유다의 왕이 통치하여 이룩할 아름다운 사회를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먼저 분석할 것은 이 해석단위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다. 에브라임, 유다, 이집트, 앗수르 등의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8세기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상황임을 알 수 있다.⁷⁾ 그리고 11장 6-9절에 나타나는 은유적 이미지가 종말에나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위를 이어나갈 다음 왕 시대에 이루어질 비전임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계승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인 것이다. 즉 새로운 왕의 리더십에 의해 이룩될 아름다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⁸⁾

Grands Rapids: Wm. B. Eerdmans, 1990)

6) P.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75), 134-136.

7)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으며 시기는 주전 734년이었다. J. H. Hayes and S. A. Irvine, *Isaiah: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42-43.

8) 이사야 11장의 이상적인 광경을 평화로운 국제질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평화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도 강자와 약자 간의 평화로 볼 수 있다. R. E. Clements, *Isaiah 1-39*, 124; 이영미, “예루살렘 이사야의 생태 은유를 통한 예언: 이사야 5장 1-7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면밀하게 분석할 차례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은유적으로 보여 준 이사야 11장의 공동체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이지 평준화시킨 공동체가 아니다(사 11:6-9). 이리와 어린 양은 분명 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사자와 소도 분명히 강자와 약자로서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두가 이리가 되어야 하고 혹은 모두가 양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다. 양들만 있어야 힘이 균등해지니 이리는 추방시켜야 한다든가 혹은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다. 강자와 약자로서 힘의 차이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서 빈부의 차이가 있어도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사야 11장은 강조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사야 11장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사 11:6)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살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르(גַּ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주자(나그네)로서 살아가다”라는 뜻이다.⁹⁾ 이주자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쉽게 착취당할 수 있고 신변보호를 받기 힘든 약한 사람들이었다. 이리가 약자인 ‘이주자’가 되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어린 양 곁으로 와서 함께 살기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려면 강자가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약자의 생활방식에 맞추려는 노력을 할 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사야 11장에는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광경이다(사 11:7).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으로 식단을 변경한 것이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다면 어떻게 소가 마음 놓고 사자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겠는가? 결국 소와 함께 살아가려면 사자가 풀을 먹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면 강자가 약자를 포식하는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강자에게는 약자를 잡아먹는 방식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결단력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포식하는 방식을 버리고 대기업 스스로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첨단제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과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불가피함을 보여준 것이다.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광경은 “어미 암소와 어미 곰이 풀을 뜯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사 11:7a)라는 광경이다. 약자인 암소가 강자의 다가움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같은 사실이다. 특히 새끼를 양육하는 어미 짐승의 경우는 새끼를 보호해야겠다는 본능적인 심리에 의해 극도로 경계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어미짐승이 맹수와 함께 먹이를 나누고 새끼들도 함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은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니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강자가 약자와 어울리려고 해도 약자가 신뢰하지 않고 받아 주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어서 약자가 강자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과 11장 1-9절을 그 실례로.” **신학연구** 제48집 (2006), 32-33. 전체 17-36

9) F. A. Spin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ed C. L. Meyers and M. C'Connor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323-325; T. J. Meek,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BL* 49(1930) 172-180.

또 다른 이미지는 맹수와 여러 짐승들을 어린이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사 11:6). 이와 비슷한 이미지는 8절에도 나타나는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집을 건드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형벌을 받을 때 범죄한 사람과 유혹한 뱀은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사는 관계가 되었다(창 3:15). 그러나 이제 상처를 주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창조질서의 회복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도 짐승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과 짐승 사이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습이다.

이 이미지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강조하는 내용은 9절에 나타나는데 아웨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드*’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동침하듯 친밀하고 깊이 알고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아웨를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을 가리킨다.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비로소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을 ‘나(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불렀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실을 긍정하는 강력한 표현이다.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이사야 65장에 다시 나타난다. 이사야 11장과 비교해보면, 65장 25절에는 이리와 양이 함께 있는 장면(사 11:6)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은 장면(사 11:7)이 나타나며 평화로운 뱀의 이미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사 11:8).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파괴함도 없을 것이다”(사 11:9)라는 구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65장과 11장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은 65장과 11장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11장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 종결되고 다윗 왕조가 확고히 통치권을 장악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리고 65장은 포로후기에 선포된 예언이며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새로운 사회를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사야 65장에서는 11장의 예언을 활용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서도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다. 전혀 없는 것에서도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성경적 공동체 형성 방안

1)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공유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동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인간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차이는 인간 사이의 문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해결 방안도 인간 사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인간은 인간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서있는 땅(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방안을

찾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자연(땅)과 연결시켜야 한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며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때로는 슬픔과 고통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임을 보여 준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기에 지상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회막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신이 사람 사는 곳으로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 공동체에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다.

자연은 사람과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땅을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어 살아가지만 사람은 자연을 주어진 물체로만 볼 뿐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며 나누는 존재로는 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자연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창 3:19) 하셨다. 즉 사람은 자연에서, 즉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흙이 된다는 뜻이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또한 보여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 즉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창 3:17). 이것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자동적으로 땅이 함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니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땅으로 대표되는 자연은 인간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치 한 몸처럼 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가족처럼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공동체’라 이름 지었다.¹⁰⁾ 이제부터 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찾아 갈 것이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개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이다. 엘리야 시대에 3년 가뭄이 지속될 때 부자의 밭과 가난한 자의 밭은 달랐는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할 때 강자와 약자의 구별되었는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화산이 폭발할 때 과연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에게 다르게 덮쳐올까?

이러한 공동체적인 현상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난다. 우선 소수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형벌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뜻밖에 참패를 당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탄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하여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고 처벌하였다(수 7:1-26). 그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백성이 참패한 이 사건은 소수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경우는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 다수의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죄악이 많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의인을 보아서라도 소돔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으로 인해 소돔 사람 전체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기 시작하여 10명까지 내려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명이

10) 정중호, **하나님의 공동체** (계명대학교출판부, 2012), 25-41.

라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아서 소돔 사람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다(창 18:22-33). 죄 지은 사람 개개인이 형벌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단체 안에 소수의 의인이 있다고 해서 다수의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보시지만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적 형벌과 공동체적 용서가 가능할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원리를 창조신학과 제사장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창조신학에서는 인류가 한 가족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온 인류는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이기에 공동체이며 공동체로서 복도 받고 형벌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제사장 신학에서는 공동체 정신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제사 절차를 분석해 보면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레 16:1-34). 백성 가운데 소수가 범죄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대속죄일에 공동체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 공동체가 받을 큰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의 범죄자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¹¹⁾

대속죄일 뿐 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의 원리 속에는 이처럼 공동체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범죄했음에도 신속하게 회개하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소수의 범죄자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원리가 있다.¹²⁾ 공동체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자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파멸당하는 모습은 에스겔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에스겔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동쪽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겔 11:22-24). 이 장면은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백성 한 가운데 있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다. 백성 한 가운데 성전에 계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범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함께 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 예가 바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이다.¹³⁾

주목할 만한 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주도하여 노비 주인들로 하여금 노비를 해방시키도록 하였다(렘 34: 8-22). 노비를 해방시킨 사건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비해방법을 지킴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혹시나 함락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취한 행동이었다.¹⁴⁾ 또한 한국에서도 해방

11) Jacob.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2004), 162.

12)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nchor Bible vol. 3; New York: Doubleday, 1991), 260-261.

13) 정중호, **레위기-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1999), 91-92.

14) 노비 해방법은 계약법전(출 21:2-11), 신명기법전(신 15:12-18), 성결법전(레 25:39-55) 등에 나타난다.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44집 (2012), 180-184.

후 농지개혁을 단행할 때 공산화되면 농지를 몰수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순순히 개혁에 동의하였다.¹⁵⁾ 이처럼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닥치면 강자와 부자들도 평소에는 하기 힘든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가 공동으로 복을 받고 형벌을 받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자도 풀을 먹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람과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님까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자도 강자가 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강자의 결단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자 신학 공유

이리가 양 옆에 *케르*(이주자)로 다가오며 양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사 11:6). 만일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인 이주자라 여긴다면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공유하면서도 특이하게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 즉 “시리아에서 온 이주자”라 고백한다(신 26:5).¹⁶⁾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다. 모든 족보에는 시조 조상을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게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조인 아브라함을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인 ‘이주자’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주자임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주자였고 야곱도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 이주자였으며 말년에는 이집트로 이주한 조상이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로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귀환 이주자였다.¹⁷⁾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주자로 시작하였고 역사 가운데 빈번한 이주 경험을 한 백성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을 보면 이주자 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지중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산간지대로 이주하는 물결이 있었으며, 무역활동과 전쟁참여와 피난민 등의 형태로 사방으로 이동하는 물결도 있었다. 실제로 고고학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보면 주전 13-12세기 사이에 이스라엘 산간지대 인구가 6,000여명에서 75,000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인구 급증 현상은 대규모 이주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처럼 이주와 이동이 활발한 이스라엘 산간지대에서는 이주자라는 공통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이주 경험인 출애굽 경험을 신앙고백의 핵심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절기 때 마다 출애굽 이주 경험을 회상하며 이주자 신학을 공유해 왔다.

15) 전용덕, “한국의 농지개혁. 소득 재분배, 농업생산, 그리고 거래비용”, 전용덕, 김용영, 정기화,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제로변화** (자유기업센터, 1997), 110, 119.

16)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구절은 농사지은 것을 추수하여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는 신앙고백문에 포함되어 있다(신 26:1-11).

17) 정중호, “‘귀환 이주’가 구약에서 강조된 이유,” **구약논단** 39집 (2011), 138-139.

18) William Dever, “이스라엘과 가나안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71-72.

이러한 이주자 공동체 의식은 이주자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의 이주자(나그네)라는 신학이다. 이러한 신학은 레위기와 시편 그리고 역대기에 나타난다.

땅을 아주 팔아서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야웨)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이주자(게르)요 거류자(토샤브)일 뿐이다(레위기 25:23).¹⁹⁾

나는 주께 이주자(게르)가 되고 거류자(토샤브)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같으니이다(시편 39:12).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이주자(게르)와 거류자들(토샤브)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역대기상 29:15).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줄 때도 그 땅을 “게르의 땅”이라 불렀으며(창 17:8), 시편에도 “나의 게르의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시편 119:54)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터전인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자신들은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이주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주자 신학의 핵심은 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약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이주자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레 19:18)는 말씀에서 “너는 그(이주자)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레 19:34)는 말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²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이주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함으로 인해 진정한 성경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자선이 아니라 나눔

특이한 것은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상적인 광경 가운데 강자가 약자를 돕는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힘의 격차나 경제적 격차가 있을 때는 도우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광경에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에서는 자선이 아니라 나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누가 누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있을 뿐이다. 자선일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수치를 느낄 수 있고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받으면서도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눔일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자연스럽게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이삭줍기라는 방식으로 도우라고 가르친다(레 19:9-10; 23:22; 신 24:19-21). 부자가 곡식을 추수해서 자루에 담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나와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19) 토샤브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게르와 유사한데 ‘거류자’ 혹은 ‘우거하는 자’(역대기상 29:15)라고 번역되어 있다. 다만 사용된 경우를 보면 게르보다 신분상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샤브가 게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창 23:4; 레 25:23, 35, 45, 47, 47; 민 35:15; 시 39:12).

20) Jacob Milgrom, "The Alien in Your Midst," *Bible Review* (1995/12), 18.

밭 주인이 벼단에서 이삭을 뽑아 흩어놓기도 한다. 때로는 밭 귀퉁이에는 아예 낫을 대지 않고 이삭들을 남겨두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 일해서 양식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때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금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 65장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광경에는 열심히 노동해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가옥을 건축하여 가족들이 그 안에서 거주하며 열심히 포도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사 65:21).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사 65:22)이라 하였으니 이상적인 광경에는 기본적으로 일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열심히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의 기본 중 기본이다.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복지제도도 또한 나눔의 한 방식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하게 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운영할 때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회공동체도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자선의 형식이 아니라 나눔의 형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을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4) 사람과 자연은 한 공동체

이사야 11장의 이상적 공동체에는 어린 아이가 맹수를 이끌고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고(사 11:6), 젓 먹는 갓난아기가 독사와 함께 장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사 11:8). 사람과 자연이 서로 해치는 사이가 아니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요 사람이 자연을 인도하는 임무를 평화롭게 수행하는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만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위임하셨다(창 1:28b).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מָשַׁל*(*masal*)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의 위상과 통치 방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삼으시며 지도자의 임무를 맡기셨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왕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 지도자가 된 것이지 사람 위에 있는 초인간은 아닌 것이다. 성경적 왕권은 절대왕권이 아니다. 더구나 왕이 모든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은 있을 자리가 없다. 오직 왕으로서의 임무는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니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 상위의 존재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과 자연이 별 차이가 없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간과 짐승은 똑 같이 흙으로 지어졌고 생명체(네페쉬 *haya*)가 되었다.²¹⁾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억울한 피를 받은 땅이 아벨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창 4:10). 때로는 인간의 죄악이 너무 많을 때 땅이 인간을 견디지 못해 인간을 토해내기도 한다.²²⁾ 또한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사람과도 계약을 맺

21) 창 2:7; 2:19. **개역개정**에는 ‘네페쉬 하야’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람에게에는 ‘생령’이라 번역하고(7절) 동물들에게는 ‘생물’이라 번역하였다(19절). 다만 7절에는 각주에서 ‘히, 생물’이라 표기하여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생물’임을 표시해 두었다.

22)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는 내용은 주로 레위기기에 나타난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레 18:25);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고 동물과도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다(창 9:9-12; 호 2:18).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범죄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과 자연이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뢰를 귀중히 여기면서 자연을 다스릴 때, 자연과 소통하고 나누며 자연과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정복하라’는 명령은 앞 문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a)는 문장들에 속해 있는 명령이다. 즉 ‘정복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다. 따라서 ‘정복하라’는 명령은 ‘다스리라’라는 임무에 대한 명령과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26절에 ‘다스리게 하자’만 있지 ‘정복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설득력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왕이 백성에게 하듯이 자연을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자연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을 이끌어가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소위 물질인 ‘돈’이라는 요인도 이 ‘자연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경제를 돌보고 인도하는 임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위임받았기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연을 다스린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사야 11장에는 그 열매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린아이도 맹수를 비롯한 동물들을 쉽게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사 11:6). 이것은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끈다기보다 동물들이 쉽게 따라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집을 건드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사 11:8).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요 착취하고 상처 입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보다 땅이나 돈이 훨씬 오래 간다. 레위기에는 희년을 이야기 하면서 희년이란 사람이 땅으로부터 유리되었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하였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요”(레 25:10, 13).²³⁾ 우리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빛을 갓지 못해 땅이 차압당했다가 희년 때 다시 땅이 땅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은 이처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땅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경제를 왜곡시켜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희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땅으로 대표되는 자연을 소유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갈 필요가 있다. 돈과 경제를 포함하는 자연전체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소유욕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며 자연을 다스리는 왕적인 임무를 완수할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포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레 18:28);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레 20:22).

23) 참조: 레 25:28, 41.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즉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진다. 돈과 자연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아니라 목표를 공유하는 임무 수행자로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야웨를 아는 지식과 거룩한 산

이사야 11장 9절은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내(야웨의) 거룩한 산’이라 하고, ‘야웨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공동체 구성원이 극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이며,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 누구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제외될 수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증해 주는 선언이다.

야웨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성숙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때는 강자나 약자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양양시킬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를 준수하고 순례하는 행렬에서 깊어진다. 안식일에는 노예나 이주자나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일하다. 따라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안식일 규정에 사람과 자연(가축)이 함께 지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과 자연은 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절기에도 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기며 기쁨을 나눈다. 장막절에는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 속에 지내면서 광야 시대를 회상하게 된다. 아무리 부자라도 모두가 불편한 텐트 속에서 지내면서 출애굽과 광야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월절에도 각 가정마다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며 출애굽을 회상하게 된다. 강자나 약자나 혹은 신분을 불문하고 절기를 통해 모두가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들은 축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축제 속에서 신분과 빈부의 차별이 무색해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일 년에 세 번 순례 절기를 지키는데 순례 여행을 통해 오고 가는 길에서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성전에 도착하면서 순례의 감격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야웨를 아는 지식은 야웨를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성숙되는데 그 예를 의로운 부자인 욥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욥의 경우 부자이면서도 하나님도 칭찬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 1:1, 8; 2:3)였다. 사탄이 욥의 진심을 의심하면서 시험해보았지만 욥은 진실한 태도로 그 시험을 통과하였다(욥 1:6-2:10). 사탄 뿐 만 아니라 친구들도 욥의 진심과 욥의 행동을 오해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였다. 욥에 대해 악한 부자의 전형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욥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욥 42:7-9). 욥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부자이면서 의인이었던 것이다.

욕이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욥을 축복하고(29:11-12), 망하게

된 자도 욱을 위해 복을 빌며, 과부들도 욱으로 인해 기뻐 노래하였다(29:13).²⁴⁾ 욱은 의지 없는 자들에게 미소하였을 때 그들이 반색하였다(29:24).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욱31:15)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귀한 존재임을 욱은 진심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욱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도 축복하는 의로운 부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외면하고 압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때문이라 고백하기도 하였다(욱 31:19-23).

4. 결론

본 연구는 이사야 11:6-9절에서 은유적 이미지로 제시된 이상적인 공동체가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밝히면서, 이 공동체가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11장의 은유적 이미지가 포로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 65장에 다시 활용된 사실을 주목하여 그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11:6-9 부분을 해석하였다.

그다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사야 11장 해석을 통해 발견한 다섯 가지의 실행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리와 사자와 곰 등 맹수가 약한 짐승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자가 풀을 먹는, 식단을 변경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강자와 부자도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파멸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강자가 식단을 변경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리가 이주자처럼 몸을 낮추면서 양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사 11:6), 구약성경의 중요한 신학인 이주자 신학을 분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11장에는 자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자선보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차이가 있어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자선이 아니라 나눔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이상적 공동체의 핵심이다. 사람이 돈을 포함한 자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연과의 화목한 관계는 인간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야말로 사자가 풀을 먹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동등하게 나아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양양하는 실제적 방안이다.

24) “망하게 된 자”는 히브리어로 ‘오베드’인데 알베르츠(Rainer Albertz)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자로 해석하였으며 주로 토지가 없는 소작농으로 보았다. Raine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II: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Louisville and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496-497.

<요약>

본 연구는 이사야 11:6-9절에서 은유적 이미지로 제시된 이상적인 공동체가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밝히면서, 이 공동체가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11장의 은유적 이미지가 포로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 65장에 다시 활용된 사실을 주목하여 그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11:6-9 부분을 해석하였다.

그다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사야 11장 해석을 통해 발견한 다섯 가지의 실행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리와 사자와 곰 등 맹수가 약한 짐승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자가 풀을 먹는, 식단을 변경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강자와 부자도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파멸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강자가 식단을 변경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리가 이주자처럼 몸을 낮추면서 양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사 11:6), 구약성경의 중요한 신학인 이주자 신학을 분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11장에는 자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자선보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차이가 있어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자선이 아니라 나눔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이상적 공동체의 핵심이다. 사람이 돈을 포함한 자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연과의 화목한 관계는 인간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야말로 사자가 풀을 먹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동등하게 나아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양양하는 실제적 방안이다.